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19:00		06:30 (새벽)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0:30 (교중)	
		12:00 (낮)		12:00 (초등부 소성전)	
		16:00(국제미사)		19:00 (청년) 21:00 (밤)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일요일 (초등부 미사)				

♣ 6월은 “예수성심 성월” 입니다. ♣

* 축 첫영성체 *



6/3일(오늘) 교중 미사 중에 28명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주님의 성체를 모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스런 아들, 딸로서 바르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알 림

- 봉성체 : 6/8(금) 오전 9시부터 합니다.

● 모 임

모 임	일 시	장 소
· 위령봉사회 월례모임	6/3(일) 12시	강 당
· M.E 피정	6/3(일) 8시 출발	대부도
· 꾸리아 월례모임	10u	6/10(일) 오후 2시 강 당
	20u	6/10(일) 오후 12시 강 당
	30u	6/10(일) 오후 2시 소성전
· 사목위원회	6/14(목) 저녁 8시	강 당

● 예비자 입교식(2018년 3월 시작 교리반)

- 6월 10일(일) 10시 30분 / 교중미사 중

● 예비신자 교리반 첫모임

- 일 시 : 6/10(일) 12시 / 6교리실
- 기 간 : 8개월 / 교재 : 함께 하는 여정

(일) 낮 12시	최상남 요왕
(화) 저녁 8시	박경석 보스코 수사님
세 례 예 정	2019년 2월

● 방문교리 신청 안내

- 거동이 불편해서 예비자 교리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을 위하여 방문교리 신청을 받습니다.
- 문의 / 접수 : 교육분과장 010-7244-8520 / 사무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 성소후원회 월례미사와 영성강좌, 안수
 - 일 시 : 6/4(월) 오전 10시~ 12시
 - 주 제 : “예수 성심”
 - 강의 및 미사집전 : 최남식 베드로 신부님

• 유아세례

- 일 시 : 6/10(일) 12:00 소성전(초등부미사 중)
- 유아세례 신청서 제출: 6/7(목) 까지
- 부모교육: 6/9(토) 17시 / 소성전

※ 부모교육에는 반드시 두 분 다 참석바랍니다.

• 16지구 구역장 · 반장 월례연수

- 일 시 : 6/12(화) 오전 10시 30분 시작
- 장 소 : 고척동 성당

● 이주민 일자리 찾아주기 ! (구인 신청 안내)

- 본당 내 이주민 고용을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신청바랍니다.
- 구인 및 조직 접수처 : 사회사목 담당 010-6263-0131 또는 본당사무실

* 전신자 성경쓰기 / 성경 공부 *

※ 전신자 성경쓰기

- 기 간 : 그리스도 왕 대축일(11/25)까지

※ 성경공부 (성경, 하느님과 인간 이야기)

- 시간 / 장소 : 매주 금요일 19:50 / 대성전

(성경공부 동영상 : <http://guro3cc.com> -성당소식- 동영상자료)

▶ 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청년의 날 행사 안내 *

※ 신앙 안에서 청년활동을 통한 이웃돕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6/30(토) 18시~21시
- 장소 : 구로3동성당 식당
- 주체 : 구로3동 성당 청년연합회
- 문의 :곽정희 마리스텔라 010-3785-8617
- ※ 본당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 태중 아기 축복식

- 일 시 : 6/16(토) 저녁 7시 토요일미사 중
- 대 상 : 소중한 생명을 가지신 임산부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 협 131-018-937372
-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6/10)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10구역	청 소	2구역
------	------	-----	-----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 구역미사 및 형제회 모임

일 정	구 역	성당(강당)	형제회
6/6		쉽니다. (현충일)	
6/13		쉽니다.(지방선거)	
6/20	임원모임(반,구 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 설	복 사	독 서
6/3	유명진	심재순 김영균 서운석 유숙중	첫영성체 부모
6/10	이인옥	오성환 조홍환 신종구 김현철	하재민 맹수진

● 성체 분배자 명단

날짜	토요주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6/3	장인홍	박승환	최상남 최창열 박형순	김광수	최승일	장인홍
6/10	장인홍	박승환	최석준 손상민 김광수	오광운	최승일	박승환

● 우리들의 정성

- 교 무 금 10,753,000원
- 주일헌금 6,110,400원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2차헌금 2,201,900원
- 감사헌금 이순구 5만원 강계화 5만원 김수자 5만원
12구역 5만원 최 〇〇 10만원 송규봉 5만원
김순임 20만원 김 종순 3만원 박정순 5만원
한별임 5천7백9십원 김경은 5만원 김순엽 2만원

회답송



구 원 - 의 잔 받 들 고 주 님 의 이 름 부 - 르 리 라

교무금 통장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써 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113. 성경에서 가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성경에서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주 다룹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는 하느님의 사랑과 신의에 대한 체험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혜들을 알려 주도록 요구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구체적으로 전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께 애정과 사랑을 쏟으셨고 그분을 기르셨습니다. 하느님은 ‘평범한’ 가정을 고르셨고,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태어나고 성장하심으로써 가정을 하느님의 특별한 자리로 삼으셨으며, 공동체인 가정에 유일무이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114. 교회는 가정을 어떻게 보나요?

교회는 가정을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자연 공동체로 봅니다. 가정은 고유한 근본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말하자면 가정은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이며, 이웃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성장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적 질서가 기인하는 사회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교회는 가정을 신성한 제도로 여깁니다.

115. 가정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정에서의 경험입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살면서 애정, 연대, 존중, 헌신, 도움과 정의 등을 체험합니다. 모든 가정 구성원은 능력과 업적에 관계없이 각자의 존엄성을 다른 구성원에게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존중받습니다. 각자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습니다. 개별 인격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이로써 가정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문화가 생깁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업적, 특히 재산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적·인간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도전이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는 정신입니다.

116. ‘가정’은 현대 사회에 정말 적합한가요?

적합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윤리적, 종교적 확산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아주 복잡합니다. 현실에서 각각의 영역들은 저마다의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의 안녕과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각각의 영역을 결합시킵니다. 인간은 오늘날 높은 이상과 좋은 관계에 의해 지탱되는 가정 이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더 나은 안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성공적인 공동생활을 위해 상호 간의 존중, 정의, 대화와 사랑 등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정은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인간 통합의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국가와 다양한 사회 영역, 예를 들어 경제, 정치, 문화를 위한 사회적, 인간적으로 필수적인 조건들이 생깁니다.

117. 가정은 개인을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가정을 체험하는 것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개인은, 본능적으로 호의를 지니고 자신을 마주하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인간 공동체를 처음으로 체험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모든 가정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협력을 준비하여, 이를 위한 힘을 기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개인은 가정 안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구성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등 각자의 역할을 통해 우리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의무를 마주하게 됩니다.